



나도 강소라처럼... 방한부츠로 겨울나기

▶ '겨울신발'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이 부츠다. 어그부츠를 밀어낸 패딩부츠, 레이스업부츠의 강세는 올해도 계속될 듯하다. 2009년 첫 출시된 이래 방한부츠의 대명사가 된 부피 제품을 신은 노스페이스 홍보대사 강소라.

노스페이스 '부피' 구스다운 충전재 보온 최고형지이스콰이어 '앵클 부츠' 방수·접지력 극

소설(小雪)이 지나고 본격적인 추위가 찾아오면서 방한 아이템을 찾는 소비자들의 손길이 분주해지고 있다. 겨울에는 따뜻하고 쾌적하게 입을 수 있는 뽕뽕만 아니라, 시린 발을 포근하게 감싸주면서 안정적으로 신을 수 있는 신발 준비가 필수다.

겨울 신발 중에서는 뭉치 뭉치 해도 부츠가 빠질 수 없다. 발이 푹푹 빠질 정도로 눈이 쌓인 날이나 발가락 끝이 찌릿하도록 추운 날씨에는 부츠만한 방한 용품이 없다. 최근에는 보온 소재를 넣어 방한 효과를 높이거나 방수성과 접지력 등 기능성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디자인의 제품들이 다수 출시돼 겨울 동심(冬心)을 자극하고 있다.

● '방한부츠의 대명사' 노스페이스 부피, 올해도 대세
2000년대 초반부터 유행한 어그부츠가 귀여운 디자인과 보온성으로 인기를 끌었다면 최근엔 어그부츠의 단점을 보완해서 미끄러짐 방지 밑창과 눈

과 비를 막을 수 있는 방수 소재 등을 적용한 패딩 부츠, 레이스업 부츠가 인기를 끌고 있다.

영원아웃도어(대표 성기학)의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는 본격적인 겨울을 앞두고 보온성과 접지력을 두루 갖춰 빙판길에서도 따뜻하고 안전하게 신을 수 있는 방한 부츠 '부피(BOOTIE)' 신제품을 선보이며 호응을 얻고 있다.

노스페이스 '부피'는 최고급 구스다운 충전재를 사용해 보온성을 극대화하고, 패딩 재질을 연상시키는 입체적인 디자인으로 선보여 2009년 첫 출시한 이래 방한 부츠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한 제품이다. 이번 시즌에는 최상급 구스다운 및 자체 개발 소재인 'VX(Vertical Excellence)'를 충전재로 사용해 보온성을 높였다. 밑창에 유리섬유 조직을 이용한 '하이드로 스톱퍼(HYDRO STOPPER)'와 세라믹 소재의 '아이스 픽(ICE PICK)' 등을 적용해 접지력을 강화했다. 다양한 길이와 풍성한 퍼(FUR) 디테일 등 다채로운 디자인으로 선보여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대표 제품인 노스페이스 '16 부피(16 W BOOTIE)'는 가볍고 따뜻한 최고급 구스다운 충전재를 사용해 보온성을 극대화하고, 하이드로 스톱

퍼를 밑창에 채용하여 접지력을 강화시킨 기본 미드컷 스타일 제품이다. 남녀 제품으로 선보여 커플 아이템으로도 제격이다. 여성용은 제이드, 다크 브라운, 애쉬, 스모크 그레이, 블랙의 5가지 컬러로, 남성용은 블랙 한 가지 색상으로 선보였다. 가격은 남녀 제품 모두 12만9000원.

● 보온성·디자인 모두 잡은 여성용 부츠 인기

노스페이스는 다양한 소재와 디자인을 적용한 여성용 부피 제품들도 출시했다. '16 부피 브이엑스(16 W BOOTIE VX)'는 VX 충전재와 아이스 픽 밑창을 적용해 보온성과 내구성이 우수하다. '16 부피 쇼츠 미드 퍼(16 W BOOTIE MID FUR)'는 상단 부분에 방한성이 뛰어난 퍼 소재를 더해 포근한 느낌을 선사한다. 두 제품 모두 블랙과 스모크 그레이 두 가지 컬러로 선보였다. 가격은 '16 부피 브이엑스' 8만9000원, '16 부피 쇼츠 미드 퍼' 13만5000원.

형지이스콰이어는 보온성과 세련된 디자인을 겸비한 여성용 데일리 앵클 부츠 '툰앤툰 앵클 부츠'와 '캐주얼 앵클 부츠'를 출시했다. 기능성 발열 내피를 적용해 보온 효과를 극대화하고, 밑창에 가보시 힐을 적용해 편안한 착화감을 제공

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캐주얼 앵클 부츠'는 10mm 컴포트 중창을 삽입해 지면의 충격을 흡수하여 탁월한 착화감과 안정감을 제공한다. '툰앤툰 앵클 부츠'는 블랙, 베이지 2가지 컬러로, '캐주얼 앵클 부츠'는 블랙과 카멜 2가지 컬러로 출시됐다. 가격은 두 제품 모두 33만9000원.

샌들이 주력 제품인 크록스도 앞이나 옆에서 끈을 묶는 레이스업 부츠가 디자인 트렌드라고 판단하고 방한용 제품을 선보였다. 대표 제품인 '로지포인트 레이스 부츠 우먼'은 레이스업 스타일로 신발 상단에 모피 장식을 더해 여성스러움이 돋보인다. 내구성과 미끄러짐 방지를 위한 고무 밑창과 경량성을 갖춰 출퇴근길 복장으로도 손색이 없다. 가격은 9만4900원.

영원아웃도어 관계자는 "발은 우리 몸에서 체온을 쉽게 빼앗길 수 있는 신체 부위이기 때문에 겨울철 야외 활동 시에는 발의 보온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며, "최근 보온성은 물론 방수성, 접지력 등을 강화한 부츠들이 다채롭게 선보이고 있어 겨울 데일리 슈즈 아이템으로 활용하기 그만이다"고 말했다.

양형호 기자 ranbi@donga.com



블랙야크가 '성장'과 '안전'을 키워드로 선보인 BK폴카 케이스(위)와 BK아크스타 책가방. 사진제공 | 블랙야크

블랙야크 키즈, 책가방 7종 출시 신학이 맞아 U자형 어깨 끈 등 기능성 강화

블랙야크에서 전개하는 키즈 전용 아웃도어 브랜드 블랙야크 키즈가 2017년 신학기를 위해 '성장'과 '안전'을 키워드로 기능성을 높인 책가방 시리즈 7종을 출시했다.

신학기 책가방 시리즈는 무게 하중을 최소화할 수 있는 U자형 어깨 끈을 적용해 편안하고 안정적인 착용감을 제공한다. 가벼운 EVA소재와 내구성이 좋은 PU소재를 사용해 어깨 끈으로 쉽게 꺼지지 않고, 책가방의 무게를 적절히 분산해 성장기 어린이가 편하게 가방을 뺄 수 있다.

'BK폴카케이스'와 'BK아크스타' 등 일부 제품에는 폴리카보네이트를 사용해 견고하면서도 가볍게 만들었다. 폴리카보네이트는 쉽게 깨지거나 변형이 되지 않아 가방은 물론 안에 담은 물건도 손상될 염려가 없다.

블랙야크 키즈는 책가방 출시를 기념해 12월 11일까지 인증샷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책가방 신제품 구매 후 블랙야크 SNS 채널을 통해 착용 인증샷을 찍어 댓글로 남기면 된다. 추첨을 통해 블랙야크 키즈 패딩(2명), 맨투맨 티셔츠(2명), 아메리카노 기프트콘(100명)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

양형호 기자

IT·게임

엔씨소프트, e스포츠 대회·공연 강화... 'IP 활용' 속도전

'블스' 토너먼트 대회·캐릭터 테마로 공연 '리니지' 시리즈 IP 활용 게임도 내달 출시

한국의 대표 게임 개발명사로 강력한 지적재산권(IP)을 다수 보유한 엔씨소프트가 주요 타이틀의 IP 활용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블레이드앤소울'(이하 블스) e스포츠 대회와 공연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기에 '리니지' 시리즈를 활용한 모바일게임 출시도 서두르고 있다.

먼저 지스타가 열린 지난 18일과 19일 부산 영화의 전당 특설무대에서 '신한카드 블스 토너먼트 2016 월드 챔피언십'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를 동안 1만여 명의 관람객이 경기를 보기 위해 모여 들었다.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장르의 e스포츠 대회는 흔치 않은 일이다. 블스는 게임 내 대전이라는 콘텐츠를 활용했다. 2012년 출시한 뒤 대전 콘텐츠로 '비무 대회'를 지속적으로 열어 왔다.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블스 토너먼트 2016'이라는 이름으로 e스포츠로서 도전을 이어갔다. 특히 올해는 변화도 시도했다. 지난해 이벤트 매치로 선보였던 태그매치를 신규 종목에 추가했다. 팬들에게 싱글과 다른 보는 재미를 선사했다. 결선에서는 한국의 김진겸이 중국 선수를 꺾고 싱글 부문 2연속 우승을 달성했다. 태그매치 부문에선 'GC Busan'팀이 초대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블스 e스포츠하면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게임 IP와 문화 공연을 연계한 특별 공연이



엔씨소프트가 '블레이드앤소울' e스포츠 대회와 공연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신한카드 블스 토너먼트 2016 월드 챔피언십' 대회 현장 전경. 사진제공 | 엔씨소프트

다. 지난해엔 블스 IP의 스토리와 캐릭터를 테마로 한 뮤지컬 '목화마녀 진서연'을 선보여 화제를 모았다. 올해는 IP를 활용해 만든 대중음악 공연 'N-POP'을 18일 진행했다. EXO-CBX는 블스 OST 2집 'The world'의 수록곡인 '포화란의 초대장'을 새롭게 편곡한 'Crush U'를 직접 불렀다. 레드벨벳은 진서연의 테마곡(예

약인이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신곡 '그대는 그렇게'를 공개했다. 이번 특별 공연은 네이버의 V 라이브로 생방송 됐고 무려 41만명이 시청했다. 음원은 정식 발매하기로 했다. 인기 게임인 '리니지' 시리즈의 IP를 활용한 신규 모바일게임도 출시를 앞두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먼저 모바일 역할수행게임(RPG) '리니

지 레드나이트'를 12월8일 출시할 예정이다. 엔씨소프트는 또 PC온라인게임 리니지를 모바일로 그대로 구현한 '리니지M'도 공개한다. '리니지2'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게임 프로젝트도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한편 넷마블게임즈의 '리니지2 레볼루션'도 최근 12월14일로 서비스 일정을 확정했다. 김영근 기자 dionys@donga.com

'LoL 올스타전' 스페인 개최 내달 9~12일 바르셀로나서 지역대항전

e스포츠 종목 중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며 정통 스포츠화를 위한 도전을 계속하고 있는 '리그 오브 레전드'(LoL)가 한해를 마무리하는 '올스타전'을 12월9일부터 12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 팔라우 산 조르디 경기장에서 연다. 올스타전은 '미드 시즌 인비테이셔널', '월드 챔피언십'과 함께 라이엇게임즈가 연간 공식 주최하는 3대 세계 대회 중 하나다. 전 세계 게이머들의 투표를 통해 선정된 인기 선수들이 다양한 게임 모드에서 흥미 위주의 대결을 벌이는 것이 특징. 전 세계 750만 명이 참여한 투표 결과 한국을 대표할 선수는 '스텝' 송경호, '벵기' 배성웅, '페이커' 이상혁, '프레이' 김종인, '매드라이프' 홍민기로 결정됐다.

참가 선수들은 각 지역별로 '팀 파이어'와 '팀 아이스'에 소속돼 대결을 펼친다. 4일간 더 높은 점수를 쌓은 팀이 최종 승리하게 된다. 팀 파이어에는 한국과 북미, 인터내셔널 와일드카드 지역이, 팀 아이스에는 중국과 유럽, 동남아시아(대만·홍콩·마카오) 지역이 배정됐다.

올스타전은 지난해와 유사하게 지역대항전과 1대1 토너먼트를 비롯한 다양한 게임모드로 구성된다. 총 1950점이 걸려있으며 이중 1000점을 먼저 획득하는 팀이 우승하게 된다. 이외에도 단일 챔피언 모드와 돌이서 한마음 모드 등 평소 볼 수 없었던 흥미로운 대결도 펼쳐질 예정이다.

최종 우승을 차지한 지역의 게이머들에게는 'P 부스트' 아이템이 제공된다. 지난해엔 한국 지역이 속한 팀 파이어가 우승을 차지해 국내 게이머들이 혜택을 누리기도 했다.

권정원 라이엇게임즈 e스포츠커뮤니케이션 본부 총괄 상무는 "올해 마지막 LoL e스포츠 축제에 많은 기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영근 기자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